

네 인물의 삶과 믿음의 비밀을 알려준 사무엘상 -복음으로 여는 사무엘상- 사무엘상 1:9-18, 히브리서 11:1-6

정 윤 돈 목사님

* **삼상:9-18**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느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 **히11:1-6**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야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제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민성과 후대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과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인도선교를 다녀왔다. 멀지만 좋은 시간표였다. 편안하고 은혜로운 여정이었다. 인도에서 70명의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았다. 제가 시골사람이고 대학과 군대시기를 보내고 여름에는 성경학교, 주일에는 분반공부를 하느라 27살까지 해외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다. 교회에서는 세계복음화, 땅끝, 모든 민족과 족속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배웠지만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다.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저에게도 성취됨을 느낀다.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종도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사람들이 보통 3개 국어를 하고, 지역의 토속언어를 쓰는 사람도 몇 천만 명이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성취하신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237과 5천 종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가심을 느낄 수 있다. 내 생각과 관계없다. 저는 전에는 절대 인도를 가지 않

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이번에 갔다 오면서 회개했다. 인도는 인구 수로 중국을 제쳤고, 지금 생명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인도는 영어도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선교의 중요한 문이 될 수 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나는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은 후 꾀박을 받아 마음이 괴로워 성전에서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취한 줄 알고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했다.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제사장이 와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는 게 한나에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한나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평안히 가라고 한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8절에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는 기도하다가 엘리의 말을 응답의 메시지로 받았다. 엘리의 말로 상처를 입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위로받아도 현장에서 염려한다. 강단에서 분명히 답 났는데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다시 염려한다. 한나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나가 깊은 영적 치유를 받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중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성경에는 백신과 예방주사와 같은 메시지가 있고 치료제와 같은 메시지가 있다. 사람들은 치료제와 같은 메시지를 원하지만 사실 예방주사와 같은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노예, 포로, 속국, 감옥에 들어가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치유의 예방백신으로 있어야 한다. 하늘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여러분의 아버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사건과 문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뭘 하느냐, 어떤 응답을 받느냐가 아니라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다. 한나는 기도했다.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말했지만 한나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응답이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왜 한나에게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한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 생기니까 기도했다. 왜 아들을 주시지 않고 상처를 입게 하셨을까? 왜 못된 첩이 들어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떤 분은 어려운 중에도 절대 기도 안 하는 반면 한나는 문제 생겼을 때 기도했다. 문제 생겼을 때 집중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신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 한다. 그게 성령의 인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성령의 깨달음으로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가 많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 바란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주권과 부활과 삼위일체도 믿는데 중요한 때 갈등하고 응답 못 받고 염려한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왕으로 맡기고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진짜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섬기시면서 진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다. 다들 내 자녀, 남편, 애인, 돈, 사업이 주인이고 우상이다. 한나는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서원한 것을 막상 지키지 않는데 한나는 서원한 것을 순종했다. 아들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실인으로 바쳤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중요한 때에 바치라고 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믿는 척하면 안 된다. 진짜 응답 받기를 바란다. 상처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 서운함,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 자존심 있으면 안 된다. 아직도 용서 못하는 부분들과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다. 그 틀을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한나는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다. 비록 우리들이 틀린 믿음, 다른 믿음일지라도 조금만 복음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신앙생활 역지로 하지 마시라.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내 인생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우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사무엘상

은 주로 한나,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이 네 인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 한나와 사무엘, 다윗은 응답받은 사람이고 사울 왕은 모든 것을 갖고도 시기, 질투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이다. 사탄의 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어떤 분은 이성을 만날 때 외모, 학벌, 믿음, 성격 다 보는데 이런 사람 없다. 두세 가지만 괜찮으면 된다. 사울 왕은 다 가졌었고 심지어 다윗은 자기 부하였다. 그러나 왕이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하는 말에 시기, 질투가 생겼다. 다른 사람이 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 받으면 그게 다 나의 응답인데 우리는 시기, 질투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잘하면 칭찬해 주셔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 사무엘상은 주전 약 천 년 전에 사무엘과 이비아달에 의해 기록되었다. 히브리어 원전에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 70인역 성경부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누어졌다. 사무엘상의 핵심인물은 다윗이다. 사무엘상은 초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이지만 그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과 사실적으로 적용해야 할 믿음의 비밀을 많이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사무엘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무엘상의 순간순간을 보며 믿음으로 선택할 내용들이 많다. 저는 사무엘상, 하 강의를 들으며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 신앙에 적용할 부분들이 많다.

1. 사무엘상서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사무엘상을 큰 흐름으로 나누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등장과 그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다.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다윗의 등장과 사울과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사망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 지금은 사무엘상서 1장부터 31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다.

(1) 첫째는 한나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에브라임 사람인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인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자,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통곡하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다. 제사장 엘리야가 그녀를 처음엔 오해하지만, 곧 축복을 빌어준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젖을 떼 후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다. 참고할 것은,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낸 게 아니라 성막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 당시에는 성막만 있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봉사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제사장 엘리야를 섬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악행을 저지르며 제사장 직무를 더럽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며,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 번이나 그를 부르셨다.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임할 심판을 계시하셨다. 이스라엘은 이후 블레셋에게 법례를 빼앗기고 예언대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도 죽는다. 이후 사무엘의 지도하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곳을 '에벤에셀(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중요한 것은 당시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단지 예배만 드린 사람이 아니라 사사였다. 사사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다 했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2)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사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평생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자녀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된다.

(3) 어린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무술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되었다. 우리 후대도 이렇게 준비되어야겠다. 다윗은 작은 일을 어릴 때부터 준비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기능과 학문, 영적인 준비를 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게 영적서밋과 기능서밋, 문화서밋이다. 준비해야 세계복음화 된다. 300%다.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지속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어린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고 말한다. 다윗은 자기 실력만 믿은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돌을 불드셔야 한다. 이렇게

신앙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윗은 나라를 구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약 10년 동안 죽이려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선물로 받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된 왕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 이것이 완전 복음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축복하라고 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이 응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한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완전복음의 모습이다.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진짜 어려움 속에서도 빛과 향기를 발해야 한다. 절대목표를 가지고 가야한다. 흔들리더라도 절대목표를 알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부터 되돌릴 수 있다.

2. 사무엘상에 기록된 복음적인 비밀과 믿음의 비밀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는 한나의 부족한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나는 브닌나의 괴롭힘 때문에 원통하며 기도하였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 복음적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결국 시대적인 전도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다. 한나는 약속대로 어린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렸다. 한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잃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시냐고 하지 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단 한 가지, 믿으면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교회가 24장로와 70인 제자, 120문도, 5천 제자와 1천만 제자로 쓰임받을 줄 믿는다.

(2) 두 번째는 어린 사무엘의 믿음이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 홉니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사,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그들에게 불만,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오직 복음중심, 말씀중심, 기도중심으로 살고 있었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면 된다.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염려할 게 없다. 교회, 나라에 문제 있어도 걱정할 것 없다.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그게 뜻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원수 갚을 생각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더 큰 축복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주께 맡겼기 때문이다. 시편을 적고 팀을 이루어 나라에 공헌하고 적과 싸우는 일을 했다.

(3) 시기와 질투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사울 왕이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인생을 모두 망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갖고도 결국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안에 깊은 것을 치유 받아야 한다. 미움, 시기심, 질투, 이기심, 욕심, 상처, 복수심, 자녀욕심, 권력욕, 조급함, 무능, 인기주의 등. 어떤 분은 연약한 마음으로 염려하며 범죄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다. 그 뒤에는 더 큰 축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들의 뿌리는 오래 전부터 내려온 무속, 점술, 우상인 경우가 많다.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

(4) 또 어린 다윗이 가진 믿음의 비밀이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고품과 사자 앞에서 어린 양을 생령 걸고 지켰다.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에게 끝까지 보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쁨부음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되었다.

참 복음과 참 믿음의 비밀을 발견한 한나, 사무엘, 다윗과 같이 땅끝까지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참 복음과 참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될 때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영적인 비밀, 믿음의 비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나와 사무엘, 다윗과 같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여 모든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237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